

가장 한국적인 설 명절 문화체험

전주시, 15일~18일 문화시설 13개소 개방... 어진박물관 전통놀이 체험·한옥마을 문화장터 등

전주시는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가장 한국적인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 한옥마을을 비롯한 13개 주요 문화시설에서 관광객들에게 전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문화공연과 문화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전통 민속놀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한옥마을 내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에서는 탁본체험을 비롯해 복주머니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소리문화관 등에서는 천년전주 소리나눔교실, 상설공연 '전주의 소리, 세상의소리', 소리제작소에서 진행되는 만들기 체험, 창작극 '복 나와라 똑딱!' 공연, 판소리

체험 등이 진행된다.

전통술박물관에서는 가양주 빚기, 전통주 미각체험, 모주 거르기, 소주 거르기 등 전통술 시음과 체험프로그램이 열리고 최명희문학관에서는 '최명희 서체 따라쓰기' 체험과 '흔들' 작품속의 한가위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 '전주(發)발', '열서 한 장' 등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과 사랑을 담아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벽문화관은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오게' 주제로 떡국 만들기, 행운 저금통 나눔 행사, 윷놀이, 전래놀이, 색칠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부채문화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민속게임과 부채만들기 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기념품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또 완관본문화관에서는 옛 책 만들기과 목판화 한지벽걸이 만들

기 등 과거 인쇄과정을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으며 투호와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또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키움 福舍福舍(복술복술) 설맞이'라는 주제로 새해 희망달력 만들기, 한과 만들기, 매듭인형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시루방에서는 설 만두 빚기 체험행사도 열린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새해 복맞이 한지체험'이라는 주제로 '명명'이 한지 등 만들기, '아트한지 뜨기' 및 '한지와화합 PLUS'를 진행한다.

이밖에 전주역사박물관은 한복을 입고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즉석 사진을 선물하고 설맞이 특선영화 상영과 새해 소망을 담은 연날리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 등 명절 연

휴기간 하루 평균 3만7000여명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만큼 이번 4일간의 설 연휴 동안 약 15만명의 관광객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도 주말을 포함한 4일간의 연휴로 인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다채로운 전통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설 연휴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들께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에서 전통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기간 한옥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경기전 등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 조례 제정

최찬욱 시의원 대표 발의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347회 임시회에서 최찬욱 의원(진북, 금안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주시의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를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탁지도, 보호관찰대상지 지도·감독, 출소자 갱생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찬욱 의원은 "이번 조례가 관 주도의 범죄예방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국민 준법운동 활성화와 범죄예방활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전주시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조례 목적을 잘 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다문화가족 소방안전교육 실시

전주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완산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9일 결혼이주여성 센터직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올 겨울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다문화가족들이 화재 등 다양한 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시 행동요령 △119신고방법 △소화기 및 소화장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시 및 골든타임의 중요성 △자동소생장치 사용법 등이다.

결혼이주여성 찬타스레이린 씨(캄보디아)는 "뉴스에서 불이 많이 나는 걸 보고 불안했었는데 앞으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됐다"며 "남편하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 서학동 예술인마을 진입도로 인도정비 추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서학동 예술인마을로 향하는 마을 진입도로를 걷기 좋게 정비한다.

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1000만 관광객의 발길이 전주천 넘어 서학동 일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총 2억원을 투입해 사전 다리에서 남천교간 전주천서로 297m의 노후화된 인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인도가 노후화돼 걷기 불편했던 보도를 투수블록으로 바꾸는 등 정비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디자인한 아트벤치 4개와 경관조명도 설치해 경관을 꾸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서학동 예술인마을 조성 등 주민들과 수차례 회의를 했으며 작가 및 예술인, 마을 주민과 함께 아트벤치와 경관조명 디자인도 확정했다.

서학동 예술인마을은 현재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는 이 사업이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옥마을과 농남문,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해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내 예술인마을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지역현안 해결 방안 찾기 지난 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확대 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순중 부시장, 원산·덕진 구청장, 국·소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500여명 전원이 참석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경찰,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사 추정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빌라에서 A(78)씨와 아내 B(71)씨, 손자 C(24)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거실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씨 등 3명은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손자 C씨는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간호를 하기 위해 조부모 댁을 찾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 당시 현장에서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한 이들에게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고 현장감식결과 보일러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방안으로 스며든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와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는 9일 현장감식을 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여성들 폭행한 50대 조현병 환자 실형

여성들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1부는 9일 상습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55분께 전주 시내 한 커피숍 앞에서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다며 벽돌을 커피숍 유리창에 던져 23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같은 날 이유없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다음날에는 30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진 뒤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폭력 등 전과 18범인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도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합의해주지 않는다" 술마시고 난동 40대 구속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고 이웃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9일 혈박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55분께 고창군 A(53,여)씨 주택 창문을 삼으로 깨트리고, 이를 A씨가 신고하자

빈 드럼통을 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씨는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서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서씨가 또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해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삼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